
		<b>보 도 자 료</b>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 2022년 3월 4일(금) 총 3매	 환경특별시 인천		
담당 부서 도서관정책과	담당 자 • 도서관기획팀장 전종근 ☎ 440-7871 • 담당자 유의동 ☎ 440-7873			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## 인천에서 2번째로 큰 공공도서관, 검단에 들어선다 ... 26년 개관 목표

- (가칭) 인천도서관 건립,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-
- 검단택지개발지구 내, 지하2층~지상3층, 9,900㎡ 규모, 사업비 421억 -

인천 서구 검단택지개발 지구 내에 인천시에서 2번째로 큰 공공도서관이 건립된다.

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(가칭)인천도서관 건립사업이 2022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(이하 중투심)를 “조건부”로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.

시는 이번 중투심 통과로 사업의 탄력을 받은 만큼 앞으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, 설계공모,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.

(가칭)인천도서관은 서구 검단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14호 근린공원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. 사업비 421억 원(기부채납 토지비 포함)으로 지하2층 ~ 지상3층에 연면적 9,900㎡ 규모다.

올 하반기에 검단신도시 박물관과 연계해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인천시에서 2번째 규모로 건립되는 (가칭)인천도서관은 ▲ 공공도서관의 장서증가에 따른 보존 공간 부족 해결 ▲ 인천공공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 ▲ 지역주민들의 도서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.

안채명 시 도서관정책과장은 “중투심 통과로 인천 서북부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에 한발 다가선 만큼,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도서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이어, (가칭)인천도서관 명칭은 올 하반기 중 시민 공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.

#1 [참고자료] 조감도

## 참고자료

## 조감도

